

해외작품은 없지만 '보이첵' '자스민 광주' 등 기대작 줄줄이

광주문화재단, 브랜드 공연축제 라인업 발표

국립무용단 '코리아 판타지' 등 8개 작품 무대에

개막작 '자스민 광주', 8월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도 공연



페스티벌 오! 광주 (7월 2~3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다양한 공연 장르를 만날 수 있는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 공연축제 라인업이 발표됐다. 오는 7월 2일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31일까지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립무용단의 '코리아 판타지' 등 모두 8개 작품이 공연된다.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까지 진행됐던 국제공연예술제의 맥을 잇는 행사. 국비 확보에 실패,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2억원)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행사 포맷을 수정했다.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해외작품이 없어 아쉬웠지만 '보이첵' 등 기대작은 눈여겨 볼만하다.

2일 열리는 개막작은 문화재단이

제작한 브랜드 작품인 '자스민 광주'로 음악극 형식을 취한 총체극이다. 한국 전통무용인 남도 씨김제와 음악을 중심으로 짜여졌으며 오는 8월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가장 기대가 되는 작품은 사다리 움직임연구소의 '보이첵'(7월23일~24일)이다. 게오르그 뷔히너의 '보이첵'은 전세계가 사랑하는 레퍼토리. 이번에 무대에 오르는 사다리 움직임연구소 버전의 '보이첵'은 기존의 연극적 틀을 깬 작품으로 11명의 배우의 움직임과 11개의 나무 의자, 그리고 피아졸라의 음악이 어우러진 절제된 이미지가 돋보이는 수작이라는 평가다. 이미 에딘버러 프린지 탑10에 선정되는 등 수

상 경력도 화려하다.

더 패턴 컴퍼니의 복합장르물 '카르마'(7월30일~31일)는 난버벌 퍼포먼스로 한국무용의 우아한 스텝과 동양무술의 스펙터클, 공연의 흐름과 함께 무대 위에서 그려지는 동양의 사군자가 어우러진 작품. 두바이 축제 '썬피어 오브 프린지',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남미 투어 등을 거치는 등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밖에 국립무용단은 부채춤, 장고춤, 오고무 등 한국 춤의 하이라이트를 무대화한 '코리아 판타지'(7월 27일)를 무대에 올린다.

지역 브랜드 참가 작품은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단체 대부분이 지역에서 20여년 가까이 활동해온 베테랑 단체들이다.

놀이패 신명은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7월9일~10일)을 무대로 끌어올려 또 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지난 1988년 초연된 '일어서는 사람들'은 광주 5·18을 상징하는 대표 공연으로 광주 뿐 아니라 국내 각 지역과 해외 초청 공연을 통해 5·18 전도사 역할을 해 온 작품이다.

타악그룹 '일수'의 '인수화풍'(7월 12~13일)은 흥겨운 타악 공연이다. 드럼과 모듬북 등 타악기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가락과 물(水)과

불(火)이 어우러진 퍼포먼스로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다.

극단 진달래 피네의 '몽연'(7월 16일~17일)은 뮤지컬 '화려한 휴가'의 대본을 쓴 김정숙씨의 작품이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한 여인의 슬픔이 현실과 꿈속을 넘나들며 폭발하고 치유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지난 2002년 초연됐다.

그밖에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미숙씨한국무용단과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이 함께 무대에 올리는 '연의 노래'는 잘 알려진 고전 '심장'을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으로 두 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연물을 만든 것은 이 작품이 처음이다.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문화관 전시실에서는 사진작가 김은주씨의 5·18 어머니 사진전과 포크가수 함보리의 노래 전시회가 마련된다. 축제 개막 하루 전인 7월 1일 오후 8시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앞 특별 무대에서 전야제도 열린다.

티켓은 오는 6월3일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되며 6월 17일까지 사전예매하면 20% 할인 받을 수 있다. 문의 R석 2만원, S석 1만 5000원, A석 1만원. 문의 062-670-7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이이남 美 순회전시 돕는 미시건 데노스 뮤지엄 유진 진 관장

“작가는 어디에 있냐 보다 무엇을 만드느냐가 중요”

“이이남의 작품은 미디어 아트의 한 획을 긋는 ‘시각적인 시’입니다. 광주지역 작가들이 해외 화단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는지도는 무엇이든 만들고 있는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의 미국 순회 전시를 돕고 있는 미국 미시건 데노스 뮤지엄의 유진 진(61) 관장이 30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동 이씨의 작업실을 찾았다.

그는 이씨의 작품에 대해 “이이남을 통해 한국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만나게 됐는데, 누구든지 즐기고 좋아할 작품이며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의 인연은 지난해 12월 북경에서 열린 이씨가 참가한 한 전시회에서 시작됐다. 우연히 북경을 방문한 진 관장은 이씨의 작품을 눈을 땔 수 없었다고 한다.

고전 작품을 LCD 모니터 속에 넣은 뒤 원래의 그림이 움직이고, 주변에는 눈이 내리게 하는 등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이씨의 작품에 매료된 진 관장은 이씨에게 미국 전시를 권유했다.

지난 1월 데노스 뮤지엄 전시는 현지 반응이 좋아 6개월 연장전시에 들어갔으며, 내년 1월 미들랜드와 7월 칼라마주, 2013년 캘시 등 순회 전시가 예정돼 있다.

“이씨의 작품은 기존 미국 화단에 서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함을 던져줬고, ‘데노스에서 열린 최고의 전시’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진 관장의 이씨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광주 지역 작가로까지 확장됐다. 진 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의 작가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 관장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작가들은 ‘제시간에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를 놓치지 말고 필요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이씨의 미국 순회 전시에 이어 뉴욕 현대미술관(MOMA) 전시 기획도 추진중이며, 이번 기회에 더욱 많은 한국 작가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열린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씨는 미디어 작품 ‘크로스 오버시라’가 홍콩달러 50만달러(한화 7000만원)에 낙찰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비스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시립예술단 지부 광주시립합창단 예술감독·전 단무장 형사고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광주시립예술단 지부가 30일 광주시립합창단 현 예술감독 A씨와 전 단무장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광주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예술단지부는 고발장에서 “A씨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5개월간 출근하지 않은 단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켜 임금 100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예술단지부는 또 B씨의 경우 “2008년도 실기평정에서 특등인의 점수를 높게 매기는 등 평가점수를 조작, 연

구수당을 더 받게 했으며 시가 감사를 통해 징계를 지시했음에도 아직까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문예회관 관계자는 “B씨는 6월1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A씨가 지시한 공연 CD 작업은 개인 업무가 아닌, 합창단 운영을 위한 업무였지만 합창단외부에 작업을 맡길 수도 있다는 법적 해석을 받아 A씨를 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31일 '시립예술단 발전방안 시민토론회'

광주 시립예술단 민영화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시립예술단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린다.

홍인화 광주시의원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근(대전시

립예술단 운영관리담당)씨가 발제를 하며 유종성(광주문예회관장), 황성규(광주시립예술단지부장), 홍성규(전남대 교수), 박진현(광주일보 문화 부문 선임기자)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문의 062-613-5111.

/김대성기자 bigkim@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6월에 읽을 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2011년 6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함기호 한국출판매케팅연구소장의 '베스트셀러 30년'(실용·교보문고 펴냄) 등 분야별 도서 10종을 선정했다.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소셜 네트워크의 기본 철학을 제시하며 소셜 리더가 될 것을 충고하는 강요식씨의 ‘소셜 리더십(미다스북스 펴냄)’과 지사형씨가 옛 미술품을 통해 우리 민족의 심리적 기질을 살펴본 ‘한국인의 마음’(사회평론 펴냄) 등도 포함됐다.

선정 도서목록과 자세한 내용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pec.or.kr) 웹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www.geums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따뜻한 봄 즐거운 영화와 함께하세요

<p>상무점</p> <p>1관 씨니 (15세)</p> <p>2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p> <p>3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p> <p>4관 쿵푸팬더2 (전제)</p> <p>5관 씨니 (15세)</p> <p>6관 내부 수리중</p> <p>7관 내부 수리중</p> <p>8관 내부 수리중</p> <p>9관 내부 수리중</p> <p>10관 내부 수리중</p>	<p>항토사랑 영화사</p> <p>클롬버스시네마</p> <p>하남점</p> <p>1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p> <p>2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p> <p>3관 씨니 (15세)</p> <p>4관 쿵푸팬더2 (전제)</p> <p>5관 씨니 (15세)</p> <p>6관 삼국지: 명장 관우 (15세)</p> <p>7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p> <p>8관 삼국지: 명장 관우 (15세) / 헤드 (18세)</p> <p>9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p> <p>10관 쿵푸팬더2 (전제)</p> <p>11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p>	<p>MEGABOX</p> <p>M관 쿵푸팬더2 (전제) 최고급관</p> <p>2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p> <p>3관 씨니 (15세)</p> <p>4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p> <p>5관 쿵푸팬더2 (전제)</p> <p>6관 헤드 (18세)</p> <p>7관 소스코드 (12세)/캐리비안의해적 (12세)</p> <p>8관 씨니 (15세)</p> <p>9관 쿵푸팬더2 (전제)</p>	<p>CINUS</p> <p>1관 쿵푸팬더2 (전제)</p> <p>2관 쿵푸팬더2 (전제)</p> <p>3관 씨니 (15세) / 헤드 (18세)</p> <p>4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p> <p>5관 씨니 (15세)</p> <p>6관 삼국지 (15세)</p> <p>7관 회초리 (12세)</p> <p>8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p> <p>9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p>
---	--	---	---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 오남최대주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 - 0600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타워, 황금주치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